



장성호

KIA 장성호 '홀로 분투'

‘고군분투’(孤軍奮鬪). 요즘 KIA 타이거즈 장성호에게 이처럼 딱 들어맞는 말이 또 있을까?

KIA 타이거즈가 두산 베어스에 치욕의 6-7 역전패를 당했던 지난 달 30일 잠실구장. 3번 타자로 나온 장성호는 1회 첫 타석 안타에 이어 3회 1사 1루에서 우익선상을 흐르는 통쾌한 2루타를 날리며 팀에 선취점을 안겨줬다.

이후 상대 투수는 장성호와의 대결을 피했고, 장성호는 이후 3타석에서 3개의 4사구를 얻으며 이날 100%의 출루율을 자랑했다.

타율이 0.208에 불과한 4번 타자 최희섭의 ‘골목’이자, 장성호의 진가가 유감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9년 연속 3할의 대기록을 이어갔던 장성호는 지난해 부상의 여파로 0.281의 타율로 시즌을 마감하며 3할 행진을 끝냈다. 2008시즌을 준비하면서 장성호는 부상으로 신음했다. 등 통증으로 전지훈련 내내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달 30일까지 21경기에 나선 장성호는 타율(0.354) 3위, 출루율(0.511) 1위를 달리고 있다. 삼진은 3개만 당한 것에 비해 상대 투수로부터 22개의 4사구를 얻으며, 이 부문도 1위다. 장성호는 좀처럼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KIA에서 꾸준한 타격감으로 상대팀에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 달 16일 LG 트윈스와의 잠실 경기에서 슬라이딩을 하다 왼손목을 다쳤던 장성호는 등에 담까지 들었지만 팀의 부진으로 19일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주사를 맞으며 출전을 감행했다. 장성호는 이날 2타수 1안타(2루타) 3사사구로 2타점을 올리며 10-7 팀승리에 공을 세웠었지만 몸 상태가 악화돼 1주일간 타석에 서지 못했다.

장성호가 비운 3번 자리는 김주형, 이현근, 최경환이 돌아가면서 맡았지만 6경기에서 22타수 1안타 2타점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삼진은 4개나 당했다.

지난해 타격왕 이현근과 ‘빅 초이’ 최희섭이 각각 0.238과 0.208의 저조한 타율로 중심타자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서 장성호의 공백은 더 크게 느껴졌다.

27일 경기장에 컴백한 장성호는 이후 3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10타수 6안타 4사구 2타점으로 팀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4번타자 최희섭의 극심한 슬럼프가 계속된다며 상대는 굳이 장성호와의 대결을 펼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럴 경우 덩달아 장성호도 타격감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장성호. KIA의 유일한 ‘희망’이자 ‘아킬레스건’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타율 (0.354) · 출루율 (0.511) 1위

허약한 중심 타선의 ‘유일한 희망’

상대투수 승부 기피 ‘아킬레스건’

“어린이 날 야구장 오세요”

KIA, 운동회 등 다양한 행사 마련

KIA타이거즈가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명랑운동회’, ‘백일장’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5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를 치르게 되는 KIA는 경기에 앞서 어린이와 부모, 선수들이 함께 하는 릴레이와 대형박 터프트리거 등의 운동회를 개최한다. 이날 운동회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에게는 운동화와 점퍼, 어린이 회원 선물 세트가 증정된다.

경기장 밖에서는 낮 1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어린이 백일장이 개최된다.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 2개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백일장은 부분별 10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가 신청은 구단 홈페이지(http://www.tigers.co.kr)를 통해 하면 된다.

각 부문별 금·은·동상 시상자에게는 상장과 트로피와 함께 다편도 게임기,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무선 조종 비행기를 부상으로 준다.

이밖에도 야구장 곳곳에서는 어린이 장기자랑 및 선수 팬사인회 등 다채로운 어린이날 행사가 펼쳐지며, 해태제과의 협찬으로 어린이 입장객 전원에게 홈런볼 과자를 선물한다.

한편 이날 경기의 시타와 시구는 전남대 화순병원 소아암동의 환우들이 맡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으로의 성화 봉송을 준비하고 있는 에베레스트 등반대가 지난 달 30일 해발 5천200m 캠프에서 올림픽 오륜기를 펼치고 있다.

올림픽 성화 사상 첫 에베레스트 오른다

등반대 봉송 준비 완료

중국 CCTV 독점 중계



봉송을 취재하기 위해 각 국에서 몰려든 보도진을 위해 사상 최초로 프레스 센터가 마련됐다.

중국 베이징올림픽 성화를 성화 봉송 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중국어명: 주무랑마·珠穆朗瑪) 정상에 봉송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막바지 힘을 쏟고 있다.

31명으로 구성된 에베레스트 등반대는 지난 달 30일 해발 8천300m 지점에 성화 봉송을 위한 마지막 캠프를 설치했다고 국영 중앙 방송 CCTV가 1일 보도했다. 정상인 8천850m를 550m 남겨둔 지점이다.

해발 5천200m의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성화는 오는 4일부터 국내봉송에 돌입하는 성화 봉송 일정과 에베레스트의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해 정상으로의 봉송 일정이 최종적으로 잡힌다.

베이스 캠프로부터 정상으로 봉송되는 과정은 CCTV가 독점 중계하며 외국 방송들은 이를 유료로 받아 베이스 캠프에서 보도한다.

현재 흥릉에 도착한 성화와는 별도로 제하된 에베레스트 봉송을 성화하는 지난 27일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고, 베이스캠프에는 성화의 에베레스트

그러나 외국 취재진은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10여일 동안 티베트 지역에 머물 수 있게 됐고, 베이스캠프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성화봉송 등반대의 환송 행사도 취소됐다.

취재 일정 축소는 지난 3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티베트 지역에 외국 취재진이 장기간 머물게 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취한 조치로 관측되지만 베이징 올림픽조직위원회(BOCOG) 측은 이를 부인했다.

에베레스트 봉송 성화는 영하 30도 이하의 혹한과 강풍 등 악천후와 희박한 산소에 견딜 수 있도록 특수 설계·제작됐다.

한편 에베레스트 정상에 이르는 등산로는 티베트 루트는 물론 네팔 루트도 일반인의 등반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반중국 시위의 성화봉송 지지 움직임과 반중국 시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진형(울산동구청·왼쪽)이 1일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서 열린 '2008 안동 체급별 장사씨름대회' 첫날 백마급(80kg 이하) 결승(5전3선승제)에서 김택권(용인백옥쌀)을 3-1로 가볍게 제압하고 꽃가마를 탔다. /연합뉴스

이진형 백마장사

안동 체급별 장사씨름

이진형(울산동구청)이 올 시즌 처음 열린 정규대회 2008 안동체급별장사씨름대회에서 백마장사에 올랐다.

이진형은 1일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첫날 백마급(80kg 이하) 결승(5전3선승제)에서 김택권(용인백옥쌀)을 3-1로 가볍게 제압하고 꽃가마를 탔다.

이진형은 결승 첫번째전에서 들배지기를 시도했지만 통하지 않아 장기전에 들어갔다가 김택권보다 체중이 무거워 0-1로 기선을 제압당했다.

하지만 이진형은 들배판을 들배지기로 따낸 뒤 셋째판은 빗장걸기로 끝내 승기를 잡았다.

셋째판에서도 이진형은 거세게 밀어 붙이다 모래관 가장자리로 몰린 김택권을 덮개로 쓰러뜨려 경기를 마무리했다.

신지에 퍼팅 난조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지존' 신지에(20·하이마트)가 그린 스피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지에는 1일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골프장에서 열린 휘닉스파크클래식 2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

4타를 줄여 중간합계 8언더파 136타로 단독 선두에 나선 김민선(21·김영주골프)에 3타 뒤진 공동 8위(5언더파 139타)로 최종 라운드에서 역전 우승을 바라볼 수 있는 디미 돌을 마련했다.

유난히 역전 우승이 많아 3타차를 따라 붙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표정은 밝지 않다.

올해 들어 부쩍 말썽이 잦아진 퍼팅이 또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1라운드에서 34차례, 그리고 이날 32차례 퍼터를 사용한 신지에는 전체 타수의 절반 가량을 그린에서 허비했다.

거의 매를 버디 기회를 만들고도 네 차례 밖에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지 못했다. 7번홀(파5)에서는 3퍼트도 버디 기회가 보기로 돌변했다.

그린 빠르기에 적응을 못해 거리를 못 맞추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올해 초부터 주로 뛰었던 호주, 미국과 일본의 빠르고 단단한 그린과 달리 느리고 물렁한 국내 그린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신지에는 집에 보관하고 있던 퍼터 7~8개를 모조리 자동차에 싣고 휘닉스파크골프

8언더파...선두와 3타차

휘닉스파크 클래식 2R

장으로 가져 왔다고 털어놓았다. “그린이 느린 편이라서 헤드가 무거운 퍼터로 적응해 볼 생각”이라는 신지에는 “하다보면 적응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스스로도 답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신지에가 타수를 기대만큼 줄이지 못하면서 우승 경쟁은 안개 속으로 빠져 들었다. 아직 우승이 없는 무명 김민선이 보기없이 버디 4개를 잡아내 선두에 올랐지만 무려 10명이 3타차 이내에 포진, 치열한 최종 라운드 접전을 예고했다.

지난해 KB스타투어 5차 대회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던 조영란(21·하이마트)과 지난해 신인왕 김하늘(20·코오롱) 등이 1타차 공동 2위에 올랐다. /연합뉴스